

갤러리 색즉시공



대 화

한 여인이 묻습니다.  
“스님!”  
스님이 대답합니다.  
“예, 보살님!”  
여인이 다시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왜 이리 삶이 힘이 들까요?”  
스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보살님!”  
여인이 또 다시 묻습니다.  
“스님! 인생이 무엇인가요?”  
스님이 또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보살님!”  
스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보살님! 함께 포행하실래요?”  
여인이 환한 미소로 대답 합니다.  
“예, 스님!”



글·그림 회상 스님

아침에 일어나 호미를 들고 들로 나가는 농부처럼 긴 세월 무심한 자세로 부처님의 사상을 예술작품을 빌려 표현하고 있는 스님은 경북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으며 해인사 선원 및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다.

다양한 작업을 통해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던 중 “바르게 바라봄”의 화두를 안고 독일로 건너가 브레멘 국립 조형예술대학교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예술에 더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스님은 현재 부산 해운대 유연선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선화와 수행을 접목한 포교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미혹의 범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Buddha in Comic & Ani

데즈카 오사무의 '불새'



데즈카 오사무의 필생의 역작 '불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룬 16권. 전17권으로 끝나지만 완료된 것은 아닌 미완작이다.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虫, 1928~1989)는 한국 30~40대에게는 친숙한 일본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밀림의 왕자 레오(원제: 정글대제)' '사파이어 왕자(원제: 라본의 기사)' '우주소녀 아톰(원제: 철완 아톰)' 등 그의 작품을 한국 공중파 TV를 통해 한 번쯤 시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불새'가 극장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아톰의 원작자다보니 소년 만화를 주로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블랙잭'이라는 걸출한 의학 소재 작품부터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는 '아야코' '재일'과 같은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 아톰도 원작을 살펴보면 완전히 소년 취향의 만화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불새'와 '불새'는 수준 높은 명작이다. 두 작품들은 생명, 죽음 등 철학적 소재를 삼았고, 오사무의 작고 후 어느 쪽이 더 창작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팬들도 있을 정도이다.

이번에 소개할 '불새'는 사실상 데즈카 오사무의 살아생전 마지막 작품으로, 블랙잭과 더불어 최후기의 작품이다. 그만큼 이야기 구조의 완성도나 치밀함이 극에 달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데즈카 오사무가 이 작품에 대해 쏟아부은 애정이 상상을 초월했음을 알 수 있다. '불새'의 첫 연재는 1954년으로 그가 죽기 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연재됐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완결되지 못한 미완의 역작이다.

'불새'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의 삶'이다.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가 불멸의 존재인 '불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작품은 다루고 있다. 시간과 공간 속도 고대부터 미래시대까지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다양하게 진행된다.

작품 속 불새가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서양의 피닉스, 동양의 봉황 등을 모두 포함한 존재로서 시공을 넘어 세상을 오가며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존재인 불새는 고대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수많은 시대에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의 운명에 관여한다.

불새를 발견한 이들은 때로는 영생을 얻고자

때로는 권력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지식을 위해 불새를 쫓고 제각기 자신들의 운명과 마주한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흐트러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어가는 다양한 일들이 불새라는 존재와 얽어서 펼쳐지며 이야기를 만들어진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에피소드는 '불새- 봉황편'이다. 극장판으로도 개봉된 이 에피소드는 당시에도 작화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봉황편의 주인공은 외팔이이자 애꾸눈인 남자 가오우(我王)로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빼돌려진 삶을 살아간다. 우연히 가오우는 조각가 아카네 마루를 만나서

그리고 그날 밤 아카네 마루가 조각한 봉황 조각이 안치된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아카네 마루는 그 불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죽음의 순간 만난 봉황에게 아카네 마루는 내생에는 진정한 조각을 하고 싶다고 기원하나 불새는 그렇지 못할 운명이라고 답한다. 그렇게 자신의 생에 대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아카네 마루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듯 봉황은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른다.

'불새'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 축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들은 마치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응축하고 있는 듯하다.

윤회는 인간은 자신의 업에 따라 육도윤회(六道輪廻)를 거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자



극장판 '불새- 봉황편'의 주인공 가오우가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며 불상을 조각하고 있다.

아톰 원작자의 미완 역작

1954년부터 30년간 연재

고대와 미래, 지구와 우주

인류의 업과 사랑을 그려

잠시 길을 동행하게 된다. 하지만 "연젠가는 봉황상을 조각하셨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찬 아카네의 말이 가오우는 시기심으로 그의 오른팔에 큰 상처를 입힌다. 그후 가오우는 방랑하게 되고 출가해 불모(佛母)가 된다. 자신의 악한 감정을 조각을 통해 정화시킨 것이다.

오른팔을 다친 아카네 마루는 여행을 거듭하던 중 범부대신에게 발탁돼 불상 건립 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카네 마루는 사랑했던 소녀 푸치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세속의 때에 물들어 간다.

불상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기에 현상할 조각상이 필요하게 된다. 귀족들은 아카네 마루와 떠돌이 조각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가오우를 불러 경합을 벌이게 한다. 10일 간 독방에서 조각을 한 두 사람은 동일하게 봉황을 조각한다. 결과는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며 살아왔던 가오우의 승리였으나 아카네 마루의 모습으로 도리어 나머지 팔을 잘리고 수도에서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기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세계로의 향상(向上)과 향하(向下)가 가능할 뿐이므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와 실천이 강조된다.

또한 선행을 통해 자신의 윤회를 끊고 해탈을 경지에 올라서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현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차 있는 것이 곧 지옥이고, 탐욕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아귀이며,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축생이기 때문이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생각 한 생각을 깊이 다스려 적정(寂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효 스님은 윤회의 원인을 일심(一心)에 대한 미혹이라고 보았다. 스님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일심 외에 다시 별다른 법이 없으나 다만 무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심을 알지 못하고 갖가지 파도를 일으켜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했다. 곧 일심을 깨달을 때 윤회를 면하여 해탈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시기심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 가오우는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며 불상을 조각했다. 종국에는 봉황의 모습을 보고 일심에는 없던 명작을 만들어 낸다. 그는 자신의 무명과 굴레에서 벗어났고, 업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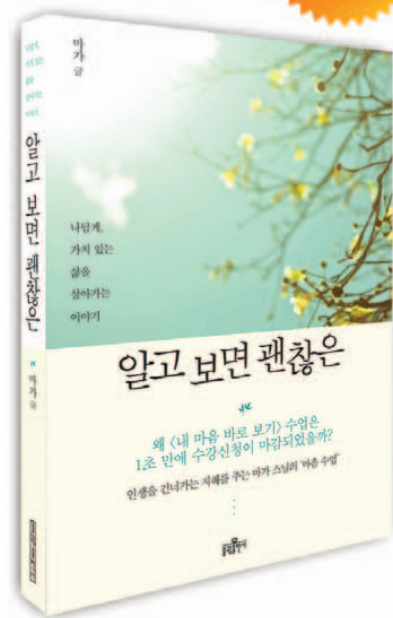
데즈카 오사무의 '불새'는 미혹한 중생을 보여주고 인간의 역사가 미혹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0년에 걸친 연재를 통해 데즈카 오사무가 보여주려 한 것은 미혹의 질곡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종일 기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무뎀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관,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화제가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그동안 니까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계가자들도 편하게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전 내용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물로 초기경전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경전 구절 몇 가지를 추리고 실명을 보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초기경전과 사람들을 있는 다리 노트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엮었으며, 부디 많은 사람들이 초기경전 니까야와 친해하기를 바랍니다. 서문 중에



이미영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영 1964년 강원도 비단강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교 0학년 교수의 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필립 집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역경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권임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SBS <무명>을 맡고 <보리살따의 사제>, YTN <적사키레 리더의 복원>을 진행하는 등-목 컬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